

孔子 教學思想의 출현 배경

- 附 歷代 帝王의 尊崇 -

吳 富 尹*

목 차

- I. 序 言
- II. 孔子의 生涯
- III. 孔子의 教學思想
 - 1. 出現 背景
 - 2. 教學 思想
- IV. 歷代 帝王의 尊崇
- V. 結 言

I. 序 言

오늘날 孔子를 연구하기 위해 참고할만한 전적은 대단히 많다. 대표적인 《論語》 외에도 《左傳》이나 《國語》·《孟子》·《荀子》·《墨子》 및 《史記》〈孔子世家〉·〈仲尼弟子列傳〉·〈儒林列傳〉, 그리고 《漢書》〈藝文志〉 등이 있다. 그 중 《論語》는 孔子의 교육 활동 및 사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이다. 이 책은 孔子가 저술한 것도 아니고, 또한 어느 한 시대 한 개인에 의해 완성된 것도 아니다.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孔子의 제자나 후대의 門人들이 孔子의 언행에 대해 기억을 되새기며 엮어낸, 말 그대로 「論語」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름하고 있는 것이다. 책의 완성시기는 대략 춘추·전국 시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책은 모두 12편으로 孔子의 언행을 위주로 하면서 제자들의 언행을 간간히 삽입해 놓고 있다.

孔子의 교학 사상 연구에 있어 《論語》의 비중은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다. 이 책에 수집해 놓고 있는 자료는 모두 509종으로, 교육과 관련된 언행은 371종, 그 가운데 직접 孔子의 교육 언행에 관련된 것만 333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¹⁾

*제주한라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전임강사

1) 毛禮銳·沈灌群 主編, 《中國教育通史》第一卷(山東教育出版社, 1985年 4月), p. 210.

지금까지 孔子에 대한 연구는 교학 사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국내의 역사학자, 교육학자를 통틀어 孔子 교학 사상에 대한 연구물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²⁾ 대부분 교육학 혹은 교학 사상의 이론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어 그 사상의 진정한 출현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論語》에 나타난 孔子의 교학 사상을 기존의 학설을 참고하면서 그의 생애 및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결부시켜 살펴보고,³⁾ 이어 역대 중국 왕조에서의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시대별 帝王들의 「褒封加諡」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叱正 바란다.

II. 孔子의 生涯

孔子(이름은 丘, 字는 仲尼)는 魯 襄公 22年(B.C. 551) 夏曆 8月 27日 魯 陬邑(지금의 山東省 曲阜市 息陬鄉 동남쪽) 昌平鄉 闕里에서 부친 叔梁紇과 모친 顏徵 사이에 태어났다. 그가 주로 살았던 시대는 尊王攘夷의 기치가 무너지고 弱肉強食의 지배 논리가 고착되어가는 춘추 시대 후기, 즉 혼란의 과도기였다.

그의 조상은 殷人으로 송나라 귀족의 후예였다. 일찍이 6世祖 孔父嘉가 宋 司馬 華督에서 피살되자 5世祖 木金父는 禍를 피해 魯나라로 피신했는데, 이 때부터 孔子의 가계는 귀족 계급의 최말단인 「士」로 강등되었다. 부친(叔梁紇)은 “有力如虎”⁴⁾의 용맹을 떨친 武士였다.

3세 때 부친이 별세하자 모친을 따라 魯의 수도 曲阜로 이주했다. 17세 되던 해(魯 昭公 7年, B.C.535)에 모친도 세상을 떠났다. 19세 되던 해(魯 昭公 9年, B.C. 533)에는 宋나라 기관씨(亓官氏)의 딸과 혼인하여 20세(昭公 10年, B.C.532)에 아들(鯉)을 낳았다.

孔子의 유년 시절은 魯에서 보냈다. 周室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당시 魯는 중국 문화의 중심지나 다름없었고, 「周禮」를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가 대단하였다. 때문에 孔子의 유년 시절은 장난마저도 祭器를 진설하여 禮를 흉내낼 정도로 이에 흠뻑 심취해 있었다.⁵⁾ 훗날 周의 문화를 「理想」으로 여기게 된 동기도 이러한 성장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부터 그는 “吾十有五而志于學”⁶⁾이라 자술하였듯이 「志于學」, 즉 학문에 뜻을 두었다. 당시 그는 “十室之邑 必有忠臣如丘者焉 不如丘之好學也”⁷⁾라 할 정도로 학문에 강한 자신감을

2)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의 毛禮銳씨 등의 《中國教育通史》와 全國教育史研究會編, 《孔子教育思想研究》(人民教育出版社, 1985年 1月)를 들 수 있다. 후자에는 공자의 교육사상과 관련하여 모두 20여개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1993년 8월 하순에는 한국의 東亞日報社와 중국 人民日報社가 공동으로 주관한 「孔子思想과 21世紀」 국제학술 세미나가 韓·中 학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에서 열렸다. 발표 논문은 《공자 사상과 21세기》(동아일보사, 1994년 10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3) 본고에서 인용하는 《論語》는 주로 臺灣 王雲五主編, 毛子水 註釋의 《論語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 民國 73年 7月 修訂1板)을 이용하고 있다.

4) 《左傳·襄公10年》.

5) 《史記·孔子世家》.

6) 《論語·爲政》.

7) 《論語·公治長》.

피력하고 다닌 志學家였지만, 그의 학문 태도는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⁸⁾처럼 자신의 아집보다는 항상 남을 통한 자극과 계발에 역점을 두었다.

당시 孔子의 학습 목표는 훗날에 보존하고 있는 중국 고대 문화를 통해 ‘治國教人’의 도리와 그에 따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학습 목표는 훗날 그의 생활 철학이 되었고, 나아가 유가 사상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孔子의 20대는 현실 체험의 시기였다. 스스로도 “我少也賤 故多能鄙事”⁹⁾라 했듯이 季氏 문하에서 「委吏」(일종의 창고 회계 관리)와 「乘田」(소·양을 관리)을 담당하면서 이 방면에 대한 그의 자질도 유감없이 발휘하였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면도 보였었다. 《論語》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다양한 부류의 제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대답을 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다양한 현실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⁰⁾

‘而立’으로 접어들면서 孔子의 학문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¹¹⁾ 이에 그는 자신의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 ‘私學’¹²⁾을 개창하고 여러 제자들을 불러 모아 講學을 전개했다. 私學 개창 후, 몇 년 동안은 魯에서 大司寇 및 재상을 겸하는 등 정치 일선에 뛰어들기도 하였지만, 자신의 私學을 통해 배출된 제자를 직접 기용하는 등 私學을 정치와 연계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했다.¹³⁾

孔子는 정치인으로서의 실패자였지만 교육자로서는 성공자였다. 그가 교육자로서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일생을 “學而不厭, 誨人不倦”의 교학정신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평생 동안의 교육적 업적은 “《詩》·《書》·《樂》·《禮》教,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七十有二人.”¹⁴⁾이라 할 정도로 양성해 낸 제자의 수나 질에 있어 충분히 자랑할만 하다.

40대는 주로 魯에서 지냈다. 昭公이 죽고, 定公이 즉위하면서 魯의 사회 분위기는 밖으로는 평온한 것처럼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동란의 분위기가 침예하게 대립되던 상황이었다.¹⁵⁾ 춘추 초부터 줄기차게 외쳐왔던 「尊王攘夷」의 노력도 신흥 卿·大夫들에게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孔子는 교육 사업을 통한 사회 개혁을 결심하고 私學 교육에 더욱 전념했다. 사상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私學은 “弟子弥衆 至自遠方 莫不受

8) 《論語·述而》.

9) 《論語·子罕》. 司馬遷 역시 20세 이전의 孔子는 “貧且賤”이라 했다(《史記·孔子世家》). ‘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17세 되던 해 季武子が 魯國의 ‘文學之士’들을 초빙했을 때 공자도 함께 참석했는데, 당시 陽虎(貨)가 “季氏支士 非敢支子也”라 한 말에 孔子가 물러나 버렸다는 점으로 보아 아직은 ‘士’의 부류에 해당되지 않는 庶人이었을 것 같다. 따라서 孔子 자신 및 司馬遷이 말한 ‘賤’은 당시 계급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10) 《論語·子罕》에 “吾不試, 故藝”라 하여 수 많은 직종에 종사했던 자신을 암시해 주고 있다.

11) 《左傳·昭公8年》條에는 孟僖子가 자신이 평소 禮를 학습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임종 때 자기 아들 南宮敬叔에게는 꼭 孔子에게 가서 禮를 학습토록 유언까지 했다.

12) 여기서 말하는 私學은 당시 ‘官府之學’, 즉 官學에 상대되는 의미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孔子의 私學 개창을 훗날 百家之學, 즉 춘추 전국시대 사상 학습의 자유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간주하고 있다. (錢穆, 《國史大綱》, 國立編譯館, P. 50)

13) 이는 孔子 자신의 교육에 대한 목적, 즉 “學而優則仕”(《論語·子張》)의 직접적인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4) 《史記·孔子世家》. 한편 孔子는 “受業身通者七十有七人”이라 했다(《史記·仲尼弟子列傳》).

15) 당시의 정치상황 및 사회 변천에 대해서는 童書業, 《春秋史》(臺灣開明書店, 民國67年), PP. 235~242에 상세하다.

業焉”¹⁶⁾ 정도의 전국 유명한 교육 장소로 발전해갔다.

50세에서 54세까지는 관운이 트인시기였다. 魯에서 지방 장관인 中都宰를 시작으로 司空을 거쳐 大司寇로 제상까지 겸했다. 《史記·孔子世家》에 의하면 “(孔子)與聞國政三月, 粥羔豚者弗飾賈; 男女行者別于塗; 塗不拾遺; 四方之客至乎邑者不求有司 皆予之以歸”라 할 정도로 당시 그의 치적에 대해 司馬遷도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훗날 魯의 집권대부 季桓子와의 모순으로 하직하기까지 4~5년간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私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를 통해 길러낸 子路·冉求 등을 직접 자신의 관리로 기용하는 등 私學은 교육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정치집단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魯에서의 정치에 환멸을 느낀 孔子는 55세(定公 13年, B.C. 497) ~ 68세(哀公 11年, B.C. 484)까지 14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列國周遊에 나섰다. 衛·宋·曹·鄭·陳·蔡·楚 등 주로 7개국을 주유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감내해야만 했던 절대절명의 순간도 여러번 있었지만,¹⁷⁾ 孔子나 제자들에게는 모두 나름대로의 수확이 있었다. 孔子 자신은 陳·楚의 주유를 통해 기존의 편협된 ‘夷狄蠻狄’觀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천시하였던 南人들에 대해 “通人情 知禮節”¹⁸⁾者임을 인식하면서 종전의 “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¹⁹⁾의 편협된 사고를 확인,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자들로서는 외지에서나마 “求仕行道”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²⁰⁾ 더구나 고행은 돈독한 師弟觀 형성 및 산 교육장이 되었다.

哀公 11년(B.C. 484) 魯로 귀국한 孔子는 정치에 대한 미련을 멀쳐 버리고 博學多識함과 풍부한 교육 경험을 토대로 문헌 정리와 講學에만 전념했다. 특히 “述而不作, 信而好古”²¹⁾의 신념에 입각하여 前代의 문화 및 문헌에 대한 연구·정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완성된 《詩》·《書》·《禮》·《樂》·《易》·《春秋》는 그의 일생 동안 중국 문화에 대한 연구 노력의 결정체였다.

孔子는 魯 哀公 16年(B.C. 479) 夏曆 四月己丑,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²²⁾ 당시 哀公은 “旻天不弔, 不憚遺一老, 俾屏余一人以在位 …, 嗚呼哀哉! 尼父! 無自律!”²³⁾의 誄文을 직접 작성하면서 자신의 제울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國老 孔子의 죽음을 애도했다.

孔子의 생애를 놓고 볼 때 한마디로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周代 禮的 질서의 회복이 그의 이상이었다면, 봉건 질서 체제의 와해는 그가 직

16) 《史記·孔子世家》.

17) 列國周遊 동안 孔子 및 제자들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山東省志·孔子故里志》(이하 《山東省志》로 간칭함) 第1篇 第1章 第4節 「周游列國」(pp. 79~82)에 상세하다.

18) 《韓詩外傳》卷一.

19) 《論語·八佾》.

20) 《史記·孔子世家》에 의하면 列國을 주유하는 동안 “孔子弟子多仕于衛”라 하여 제자들 가운데에는 衛에서 관직을 맡은 사례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근 10년동안 衛에 머물렀던 것과 관계가 있다. 당시 子路는 “蒲大夫”, 高柴는 “士師”, 子夏는 靈公의 “行人”을 각각 역임했다.

21) 《論語·述而》.

22) 孔子의 卒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春秋》哀公 16年條 및 同年《左傳》의 기록에는 “夏四月己丑 孔丘卒”이라 했다. 崔述은 孔子 逝去日은 “周夏曆四月己丑 즉 夏曆 二月 十一日에 해당한다”고 고증했다(《洙泗考信錄》卷四). 한편, 《史記·孔子世家》에서는 “周曆四月己丑”으로 夏曆으로 계산하면 “二月 十八日”로 보고 있다.

23) 《左傳·哀公16年條》.

접 목도한 현실이었다.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극단적 상황 속에서 그는 禮制의 증진을 부르짖었고, 그 모델로 「周文」, 즉 周代의 文化로 삼게 되었다. 하지만 孔子는 周 文化의 맹목적인 신봉자는 아니었다. 周代의 文化를 바탕으로 자각과 현실적 체험을 거친 후 이를 새로운 사회 질서 체제 수립의 이론으로 보편화하려 했다.

孔子의 사상은 당시 諸子들의 사상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이는 그의 출신 배경과도 관계가 있다. 孔子의 가계는 귀족으로부터 타락한 士人 집안이었다. 비록 현실 생활은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었지만, 귀족의 습성과 그들의 소위 특권이라 할 수 있는 학문, 즉 禮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갖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다른 賢大夫들과는 달리 어느 일계층의 고정된 사상에 얽매이지도 않고, 항상 庶人들의 입장에서 사상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가 추구했던 사상의 자유는 단적으로 말해 禮的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의 사회 개혁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었다. 춘추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論語》를 살펴보면 여기에 출현하는 각종 단어나 관념은 孔子 일생의 경험 및 사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의 심각한 고민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사회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고민을 적극 밖으로 표출시키면서 이를 사회 문제화하였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를 환기시키면서 공동의 자각과 책임을 이끌어 내려고 한 면도 발견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중국 고대 지식분자들 가운데 사회 문제에 대한 「自覺」을 수면 위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를 학문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한 인물로 칭송되고 있는 것이다.²⁴⁾

Ⅲ. 孔子의 教學思想

1. 出現背景

중국 전통 교육사의 출발은 곧 孔子부터라고 할 정도로 중국 교육사의 출현 및 전개 과정에 있어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크다. 때문에 중국 교육사 관련 서적이거나 논문에서 孔子의 教學思想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자들은 대부분 教學의 내면적 사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히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본문에서는 주로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

周代 교육의 특징은 「學在官府」 혹은 「王官之學」으로 지칭된다. 즉, 당시 교육은 귀족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고, 교육 내용도 포괄적으로 「禮」가 전부였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단, 이러한 교육의 특권성도 춘추시대에 접어들면서 봉건 질서의 해체와 함께 민간으로 전해지기 시작했고, 전국시대에 이르러서는 「平民之學」으로 변질, 발전해 갔다. 이처럼 당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육 대상이 귀족에서 일반 평민으로 변화하기까지는 孔子를 중심으로 한 諸子

24) 徐復觀 〈孔子在中國文化史上的地位及其性與天道的問題〉(《中國史論集》中冊, 臺灣國立編譯館, 民國 74年 6月), p. 927.

百家들의 私學 발전 등 여러 가지 노력도 있었지만, 급격한 사회 변화, 특히 계층 구조 변화에 따른 평민권의 신분 상승을 더 큰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孔子(B.C.551~B.C.479)가 살았던 시기는 주로 춘추 후기, 즉 봉건 질서의 심각한 붕괴에 따른 새로운 사회 문화 질서가 요구되는 과도기였다. 당시 각국 제후들은 周 왕실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尊王攘夷」의 기치는 내걸고 있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로는 토지와 재화, 인구 쟁탈을 위한 침탈 전쟁이었다.

이러한 전쟁 과정에서 각국은 자국을 부강시키기 위해 부국강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 각국이 취한 부국강병책은 주로 군대 강화와 재정 충족에 역점을 두었다. 군대를 강화한 결과 종전 貴族들 위주의 騎馬戰이 보병전으로 바뀌면서 평민의 전쟁 참여를 이끌어냈고, 평민들의 전쟁 참여는 그들의 신분 상승에 따른 사회 계층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다.²⁵⁾ 더불어 재정 충족을 위한 개혁 역시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부추겼다. 즉 새로운 농업 시행에 따른 토지 관계의 변화, 세법 개혁, 증농 사상의 평가 절하 및 상공업의 발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²⁶⁾

당시 사회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실은 「國人」의 분화와 「士」 계층의 발전 및 평민 계급의 신분 상승이다. 이들은 이전 周의 봉건 제도 하에서는 주로 소외된 계층이었지만, 새로운 사회, 경제 구조 변화는 이들의 역할 분담 및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었다. 國人은 주로 城(內城) 밖 郭(外城) 안에 거주하는 國君이나 卿, 大夫 등 귀족의 분족 또는 방계 후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춘추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농업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가족 분화 및 상공업의 발전, 빈번한 전쟁 참여에 따른 군공 등으로 분화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점차 향상되어 갔다.

한편, 춘추시대 경·대부들의 권력 강화는 「士」의 성장을 재촉하고 있었다. 周代 지배 계급의 말단이었던 「士」는 약간의 토지를 식읍으로 소유하면서, 文·武에 종사하고 있었다.²⁷⁾ 武士는 주로 군사 관련 직무에, 文士는 卜·史·巫·祝 등 문관들의 하급 관료로 종사해 왔다. 춘추 시대 예적 질서의 붕괴에 따른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혼탁 속에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신흥 경·대부들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재력있는 文士와 武士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결과 행정적, 무장적 능력을 구비한 이들을 포용하는 현상은 일반화되었다.²⁸⁾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급격히 성장한 경·대부들은 자신이 소유한 광범한 토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자, 대리 관리인으로 「士」를 끌어들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나아가 사상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봉건 통치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周代의 敬天·保民 및 尊禮 의식이 미증유의 변화를 가져다 주면서 重民思想과 기존의 「禮」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老聃의 「無爲」나 孔丘의 「正

25) 춘추 전국시대의 군사제도에 관해서는 勞幹, 〈戰國時代의戰爭及戰爭方法〉(앞의《中國史論集》)上冊, pp. 963~1013 및 閻鑄, 〈春秋戰國時代의軍事制度〉上·下(《社會科學戰線》, 1980年 2期·4期), PP. 224~228, PP. 227~234에 상세하다.

26) 童書業, 《春秋史》, 臺灣開明書店, 民國67年, PP. 49~56.

27) 「士」의 기원 및 봉건 질서의 해체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余英時, 《中國知識階層史論》(聯經出版事業公司, 民國 69年, PP. 5~29)에 상세하다.

28) 尹乃鉉, 《商周史》, 民晉社, 1984年, P. 200.

名'·'復禮' 주장은 모두 당시 사상계의 혼란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당시 각국이 취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孔子는 '正名'과 '復禮'를 통해 당시 새로운 제도 수립이나 사회 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신 周代의 봉건질서 체계와 周公의 통치관, 周代의 문물 예악을 자신의 확고한 이상으로 삼으면서 이는 영원히 계승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殷因於夏禮，所損益可知也；周因於殷禮，所損益可知也；其或繼周者，雖百世可知也”²⁹⁾，즉 夏 → 殷 → 周로 전해지는 禮治 관념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통치 안정의 정석으로 자리매김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전대 문물 예악에 대한 연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³⁰⁾라는 확신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孔子가 말한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自諸侯出，蓋十世，希不失矣；自大夫出，五世，希不失矣；陪臣執國命，三世，希不失矣；天下有道，則政不在大夫；天下有道，則庶人不議”³¹⁾는 당시 붕괴되어 가는 사회 질서에 대한 힐난이자, 그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라 할 수 있다.

孔子는 자기 이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새로운 계층 구조 수립과 함께 자기 위치에서의 직분을 다하는 「正名」을 주장했다. 특히, 통치자에 대해서는 정령이나 형벌보다는 德治와 禮治를 주장했다.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내면적인 '仁'의 수양을 강조했고, '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절제는 곧 禮에 따라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했다.³²⁾ 따라서 그의 '正名'과 '復禮'는 개별적 실천 사항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상호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 '禮'로 귀속될 수 있다.

周代의 禮는 귀족에 제한되어 있었고, 당시는 학문의 범칭이었다. 그런데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 禮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세분화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대체로 귀족이나 일반 서민 할 것 없이 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질을 보게 되었다. 특히 통치자의 경우 이를 통치 수단으로 재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즉, 춘추 전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周代의 사회 윤리요, 질서 관념으로 절대시되었던 禮는 시대 상황 및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쉽게 재해석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단점을 노출하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孔子가 주장하는 禮 속에는 '正名' 사상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국의 집권자들은 종종 유교주의 통치 이념을 확산한다는 미명하에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 안정과 통치 수명 연장책으로 이용해 왔다. 이를 이해한다면 漢武帝가 유가 사상을 국교로 채택한 후 근 2천년 간 왜 유가 사상이 중국의 정치, 사회 이념으로 고정화 될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도 쉽게 풀릴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周代의 禮와 춘추 시대 이후 禮의 근본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시대성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다. 周代의 禮가 학문의 상징이었고, 귀족들만의 학습 전유물이었다면, 춘추 시대 이후의 禮는 통치자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

29) 《論語·爲政》.

30) 《論語·八佾》.

31) 《論語·季氏》.

32) 《論語·顏淵》에 이르기를 “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이라 했다.

로 적용되는 통치 철학이자, 사회 규범이었다. 孔子가 주장하는 禮的 질서의 회복은 이처럼 일반화된 禮를 통해 「正名」의 사회 질서를 수립하려 했던 것이다. 孔子의 교학 사상 및 그 실질적인 내용도 결국은 이러한 목적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2. 教學思想

孔子가 주장하는 教學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말해 教學의 목표는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발전해 나갔는가?하는 점부터 언급하겠다. 우선 孔子의 教學思想은 “學而不厭, 誨人不倦”³⁴⁾, 즉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실천적 교육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의 교학 내용 및 교학 목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論語》에 의하면 孔子가 제자들에게 행한 교육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학의 기본 방침은 “文(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전적), 行(덕행), 忠(충성), 信(신의)” 四教였고, 둘째, 과목은 “禮, 樂, 射, 御, 書, 數”였으며, 셋째, 교재는 “《詩》·《書》·《禮》·《樂》·《易》·《春秋》”였다. 다시말해 孔子의 교육 내용은 도덕과 지식, 재능 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대상을 어느 한 계층에 국한시키지 않는 「有教無類」³⁵⁾의 교육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던 것 같다.

배움의 목적에 대해 孔子는 “學而優則仕”³⁶⁾, 즉,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특히, 평민 출신들의 정치적 능력 발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는데, 그 내면에는 이들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이상도 함께 추구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학생 각자의 소질과 학업의 장점을 파악한 후 적성에 맞는 교육, 즉 「因材施教」를 주장했다. “冉求是 천성이 소심하기 때문에 일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재촉하였고, 仲由는 기고만장하였기 때문에 먼저 그 기부터 꺾어 놓았다.”³⁷⁾ 또한 그의 교육 지론은 학생을 이해시키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 학생들 스스로의 독립적 사고 계발에 역점을 둘 것, 학생들의 지식 추구 욕망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孔子는 “배움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먼저 가르쳐 주지 말 것이며, 배움이 감탄의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말고, 한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와 유사한 방법을 깨우치지 못하면 더 이상 교육시키지 말라!”고 했다.³⁸⁾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단한 학습과 방법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했다. 특히 지식 형성에 있어 배움(學)과 추구(求)는 둘다 중요하다고 했다. 자신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 것은 아

33) 孔子의 교학사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毛禮銳씨의 책, PP. 226~329에 상세하다. 이 문장도 교학 사상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지만,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34) 《論語·述而》.

35) 「有教無類」의 해석에 대해서는 張鳴岐, 〈關於孔子“有教無類”的問題〉, 앞의 《孔子教育思想研究》, PP. 242~259에 상세하다.

36) 《論語·子張》.

37) 《論語·先進》.

38) 《論語·述而》.

니다. 다만 옛 선현의 것을 읽고 따르면서 이를 행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고 했다.³⁹⁾

한편,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발(發奮忘食)과 배움에 대한 실천(學而時習之), 그리고 선현들의 학행을 통한 새로운 것의 추구(溫故而知新)를 요구했다. 孔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顏回의 학습 태도를 칭찬했다. 종일 그와 담론할 때에는 우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공부할 때나 동료들과 얘기할 때를 보면 그의 의사 표현은 항상 사람들의 계발을 이끌어내는 바가 있어 칭찬할만 하다”⁴⁰⁾고 했다. 그런가 하면 낮에 잠만 자는 宰予에게는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조각을 잘해도 소용없고, 잠동사니가 잔뜩 들어간 흙으로 쌓은 담장에는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 수 없는 법!”⁴¹⁾이라 하면서 그의 나태함을 심히 나무랐다.

배움과 견문의 일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난 후에 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앎이다.”⁴²⁾ 또한 “배우고서도 이를 자기 것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즉 망각해 버리고 말 것이며, 배우려고만 생각할 뿐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즉 명확히 알 수 없다”⁴³⁾고 했다. 이 말은 곧 온갖 지식은 배움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듣고 본 것은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자세가 있어야만 자신의 지식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學行一致」를 주장했다. 특히 군자상에 대해서는 “말에는 신중함, 행동에는 민첩함”이라 했다.⁴⁴⁾ 말만하고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며,⁴⁵⁾ “군자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행동보다 말이 지나치는 것이다”라고 했다.⁴⁶⁾

이러한 孔子의 실천적 교육과 경험은 현실에 대한 관심과 개혁의 의지에서 시작되었다. 비록 이상에서 언급한 孔子의 教學理想은 당시에는 현실 세계와의 지나친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사회 개혁의 출발을 교육 사업에 둔 점, 교육의 출발을 人性 순화에 둔 점, 그리고 교육의 대상을 「有教無類」, 즉 계급과 직업을 타파한 점⁴⁷⁾ 등은 당시 변법가 및 사상가들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IV. 歷代 帝王의 尊崇

孔子의 사상 및 학설은 사후에야 세인의 존승을 받게 되었다. 孔子의 학설이 역대 중국 왕조의 통치 이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西漢 武帝 때(B.C. 141 ~ B.C.89)부터이다. 漢 初부터 이어져 오는 黃老思想의 「無爲而治」에 염증을 느낀 武帝는 강력한 통치 사상의 정립

39) 위와 같음.

40) 《論語·爲政》.

41) 《論語·公治長》.

42) 《論語·述而》.

43) 《論語·爲政》.

44) 《論語·里仁》.

45) 위와 같음.

46) 《論語·憲問》.

47) 孔子의 교육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有教無類”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당시 문화적 차별의식과 계급주의를 타파했다고 하는 견해가 타당할 것 같다. 앞의 毛禮銳, 《中國教育通史》, pp. 210~215.

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역시 어릴적부터 유가의 훈도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황노사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이에 武帝는 先秦 유학 사상을 토대로 음양, 법가, 명가, 도가 사상을 참작하여 만든 董仲舒의 변형된 유가 학설을 취용하여 「獨尊儒術」의 정책을 펴나갔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元朔 5年(B.C.124)에 가서는 「太學」을 개창하여 유교주의 교육 문화를 수립, 확산하는데 주력했다.⁴⁸⁾ 그 후 약 2천년 간 孔子의 사상 학설, 특히 정치 학설은 중국 봉건 통치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內聖外王」을 희원하는 통치자들에게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를 통해 제국 통치 안정 및 통치 수명을 연장해 나갔다. 남송 이후 중원을 지배한 거란, 여진, 몽고, 만주족 등 유목왕조(혹은 정복왕조)도 처음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는 2중적 지배체제를 통해 자기 부족들의 漢化를 방지하는데 주력하였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孔子廟를 폐멸하는 등 孔子로 대표되는 유가사상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였지만 통치가 안정된 후에는 대부분 孔子 사상을 이해하는데 전념했다.⁴⁹⁾ 때문에 정복왕조 시대에도 孔子 및 그의 학문(儒學)은 전통 한족 왕조와 다름없이 존승받기에 이르렀다.

역대 중국 왕조의 孔子에 대한 유형적 존승 표현은 「褒封加諡」, 혹은 황제 자신이 직접 孔子廟에 이르러 제사하거나 관리를 파견하여 致祭토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왕조별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周 敬王 41年(B.C.479) 孔子가 세상을 떠나자, 魯 哀公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誄文, 즉 애도문에서 “旻天不弔, 不憇遺一老, 俾屏余一人以在位 …, 嗚呼哀哉! 尼父! 無自律!”⁵⁰⁾라 하여 公子를 「尼父」⁵¹⁾로 존칭했다.

孟子가 孔子에 대한 호칭은 「聖之時者」와 「集大成」 두가지였다. 전자는 옛 성인들을 평론하는 가운데 孔子에 대해서는 “伯夷, 聖之清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孔子, 聖之時者也”⁵²⁾라 하여 “時勢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행함과 그침을 잘하는 성인”으로 보았다.⁵³⁾ 후자는 “孔子之謂集大成. 集大成者也, 金聲而玉振之也”⁵⁴⁾라 하여 음악을 「集大成」한 성인으로 예찬했다. 하지만 이 때까지 孔子에 대한 시호나 추봉은 찾아볼 수 없다.

孔子에 대한 諡號는 西漢 平帝 元始 元年(B.C. 1) 「褒成宣尼公」⁵⁵⁾으로 追諡한 것이 시초이다. 또한 追諡는 아니었지만, 漢代 이후 孔子를 종종 「素王」이라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

48) 최근에는 당시의 獨尊儒術이 「尊孔」보다는 「尊皇」정책의 계기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趙克堯, 〈罷黜百家, 獨尊儒術〉辯(《漢唐史論集》, 復旦大學出版社, 1993年 4月), PP. 98~PP. 108. 元朔 5年의 「興太學」 상황에 대해서는 《史記》卷88 「儒林傳序」에 상세하다.

49) 拙者, 〈宋明時代中韓學校教育之共同理想〉(祝瑞開主編《宋明思想和中華文明》, 學林出版社, 1995年 10月), PP. 225~241.

50) 《左傳·哀公16年條》.

51) 《禮記·檀弓上》에는 “魯哀公誄孔丘曰‘天不遺耆老, 莫相予位焉, 嗚呼哀哉尼父!’”라 했다. 이에 대해 鄭玄은 “尼父, 因其字以爲之諡也”라 하여 諡號라기 보다는 敬稱일 것으로 주석하고 있다. 한편 근래 楊伯峻씨는 《春秋左傳注》에서 당시 哀公은 20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평소 부친처럼 여겼던 孔子에 대한 “父稱”으로 풀이하고 있다.

52) 《孟子·萬章下》.

53) 朱熹도 그 集注에서 “孔子仕·止·久·速, 各當其可”라 했다. 한편 楊伯峻씨의 경우는 《孟子譯註》에서 이는 “성인들 가운데 時務에 밝은 자를 지칭”하는 낱말로 풀이하고 있다.

54) 《孟子·萬章下》.

55) 《漢書·平帝紀》.

의미에 대해서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大同小異하다. 우선 《莊子·天道》에서는 “以此處上, 帝王天子之道也; 以此處下, 玄聖素王之道也”⁵⁶⁾라 하였고, 《論衡·定賢》에서는 “孔子不王, 素王之業在于《春秋》”, 그리고 《中論·貴職》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仲尼爲匹夫而稱素王”이라 하고 있는데, 직접 孔子를 지칭하는 말이나 다름없다. 清末 康有爲도 《孔子改制考·卷八》에서 “孔子爲制法之主, 所謂素王也”라 했다. 이처럼 「素王」은 漢代부터 清末에 이르기까지 “王者의 道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나 왕위에 재위하지 못한 자”, 직접적으로는 孔子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역대 통치 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던 유가를 국교화하는데 일등 군주였던 漢武帝 때 孔子에 대한 追諡가 없었던 점이 이해하기에 곤란하다. 더구나 그는 중국 최초의 관학 교육인 「太學」까지 창설하여 유교주의 교육을 정치권으로까지 끌어들이는 인물이었는데,⁵⁷⁾ 당시 그의 사적을 살펴봐도 이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답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漢武帝의 獨尊儒術에 대한 재검토로까지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한무제 때 獨尊儒術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사료에 비친 상황으로는 「尊孔」보다는 차라리 孔子로 대표되는 유교주의 통치 이론을 빌려 자신을 신격화해 가는 「尊皇」의식의 발로로 해석하는 편이 합당할 것 같다.⁵⁸⁾

漢武帝 이후의 중국 학교 교육(관학)은 정치권에 강하게 예측되면서 통치자의 제국 통치 안정과 통치 수명 연장에 필요한 일등 공신을 양성해 내는 養士, 즉 관리양성소로 변질되었다. 교육 내용 역시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처럼 교육이 정치에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교육의 성격은 정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학교 교육의 발전은 정치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 쉽게 좌우되어 버리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즉, 황제의 전제권이 강화되어 정치 환경이 안정되면 그에 따라 관리양성소(학교)의 기능도 강화, 발전되었지만, 그 반대 상황의 경우에는 공동 운명체가 되어 버렸다.⁵⁹⁾ 東漢 때 환관과 외척의 권력 압투로 빚어진 정치 상황에서 결국 피해를 본 것은 중앙의 태학생 뿐이었다. 그러자 현실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낀 태학생들은 산림으로 들어가버려 인재의 공백 상태를 이루게 되었고, 나아가 인재 선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曹魏의 「九品中正法」도 이러한 인재의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볼 수 있다. 東漢 黨錮之禍 이후나 曹魏, 晉代에도 孔子에 대한 釋奠 등 교육 진흥을 위한 제왕들의 노력은 찾아볼 수 있지만,⁶⁰⁾ 孔子에 대한 諡號는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그 여파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魏晉 南北朝 시대는 중국 교육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학교 교육의 진흥기였다. 특히 五胡亂華 이후 증원을 차지한 선비족 北魏의 교육 사업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다. 위진 남북조를 통틀어 孔子에 대한 존숭은 北魏와 北周 뿐이다.

北魏 孝文帝는 太和 16年(492) 孔子를 「文聖尼父」라 追尊했다.⁶¹⁾ 특히 효문제는 재위 기간

56) 이에 대해 成玄英은 “夫有其道而無其爵者, 所謂玄聖素王”이라 疏하고 있다.

57) 당시 武帝와 太學 교육의 출현 배경, 유교주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高師明士, 〈漢唐學校教育發展的特質〉(《唐代東亞教育圈의形成》, 臺灣國史編譯館, 民國73年 1月), pp. 67~86에 상세하다.

58) 주48)과 같음.

59) 중국 역대 학교 교육과 정치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高師明士, 앞의 책, pp. 82~83에 상세하다.

60) 앞의 高師明士 책, pp. 144~148 【表2】 참조.

(471~499) 동안 2차례에 걸쳐 孔子廟에 대한 釋奠과 視學, 그리고 養老禮 1차례를 거행할 정도로 孔子 존숭에 적극적이었다.⁶²⁾ 北周 靜帝는 大象 2年(580) 孔子를 「鄒國公」으로 追封했다.⁶³⁾

隋 초에는 남북조 시대의 불교 영향으로 儒敎보다는 佛敎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였지만, 그런 상황 하에서도 文帝는 開皇 元年(581) 孔子를 「先師尼父」, 「宣尼」로 改尊하면서 존숭의 태도를 다했다.⁶⁴⁾

唐代에 접어들자 高祖 武德부터 周公과 孔子를 둘러싼 先聖制의 논쟁과 함께 「先聖先師」를 「先聖」·「先師」로 분리 규정하는 논란이 종종 제기되었다.⁶⁵⁾

「先聖先師」는 원래 후세에 본받을 만한 師道人을 경칭하는 말이다. 《禮記·文王世子》에 의하면 “凡始立學者, 必釋奠于先聖先師”라 했다. 이에 대해 鄭玄은 “先聖, 周公若孔子”라 주석하고 있다. 「先師」에 대해서도 《禮記·文王世子》에서는 “凡學, 春官釋奠于其先師, 秋冬亦如之”라 했다. 鄭玄은 “《周禮》曰:凡有道者、有德者使教焉, 死則以爲樂祖, 祭於瞽宗. 此之謂先師之類也.”라 주석하고 있다.

이처럼 《禮記》 등에서 조차 先聖·先師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東漢 明帝 永平 2年(59) 이래 先聖·先師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를 보면 漢 이래 孔子에 대한 封號나 諡號에 대한 개변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唐 高祖 武德年間에는 「聖周師孔」 및 「二聖」制를 취했다. 그 후 太宗 貞觀 2年(628)에는 역대 제도를沿用하여 孔子를 「先聖」으로 확고히 정해 놓았으며, 貞觀 11年(637)에 가서는 「宣父」로 改尊했다.⁶⁶⁾

高宗 初 永徽 연간에는 이전 高祖 武德 연간의 聖周師孔制로 일시 환원되었으나, 顯慶 2年(657)에 이르러 회복되었다. 그 후 乾封 元年(666)에는 「太師」로 追尊했다.⁶⁷⁾

玄宗은 開元 27年(739) 「孔宣父」를 「文宣王」으로 追贈했다.⁶⁸⁾ 孔子에 대한 封王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武周(武則天)는 天授 元年(690) 「隆道公」으로 追封했다.⁶⁹⁾

宋代 孔子에 대한 존숭은 眞宗이 이를 대표하고 있다. 그는 大中祥符 元年(1008) 11월 戊午, 曲阜에 친림하여 文宣王廟에 배알하고, 孔子에게 「帝」를 추시하려 했으나 내외에서 부당하다고 하자 대신 「玄聖文宣王」으로 추시했다.⁷⁰⁾ 「玄聖」은 《莊子·天道》의 “玄聖, 素王

61) 《魏書·高祖紀》.

62) 이상은 《魏書》卷7 「本紀」 및 《通典》卷67 禮典 「養老」에 보인다.

63) 《周書·宣帝紀》. 한편, 이는 孔子의 탄생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鄒」대신 「陬」로 써야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清 梁玉, 《人表考》注.

64) 《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

65) 高祖 武德 2年(619)에는 「周·孔二聖制」, 그 후 무덕 7년(624)에 이르러서는 「聖周師孔」제를 채택했는데, 이는 道統보다는 治統이 상대적 우위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舊唐書》卷189上 「儒林傳序」, 《冊府元龜》卷604 「學校府奏議」 참조.

漢 이래 「先聖先師」에 대한 논의는 《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에 상세히 전하고 있다.拙者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7·8世紀 唐代 學校制度의 教育史的 意義〉, 《東아시아研究論叢》 제3집 (제주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 1992년), PP. 102~105.

66) 《唐會要》卷35 「褒崇先聖」條.

67) 《舊唐書》卷5 高宗本紀下.

68) 《舊唐書》卷9 玄宗本紀下.

69) 《唐會要》卷35 「褒崇先聖」.

之道也”에서 유래한다. 漢代에도 孔子를 「玄聖」으로 지칭한 적은 있다.⁷¹⁾ 그 후 大中祥符 5年(1012)에 이르러서는 「至聖文宣王」으로 改諡했다.⁷²⁾ 「至誠」은 일반적으로 도덕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사람을 존칭하는 말이다. 《禮記·中庸》에 이르기를 “唯天下至聖，爲能聰明睿知，足以有臨也”라 했다. 《墨子·辭過》에서는 “天壤之情，陰陽之和，莫不有也。雖至聖不能更也”， 그리고 《史記·孔子世家》에서는 “自天子王侯，中國言《六藝》者折中于夫子，可謂至誠矣”라 평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至聖」은 역대 주로 孔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

이처럼 宋代 이후 孔子에 대한 존호가 갑자기 격상되고 있는 이유는 “王者雖以武功克定，終須用文德致治”⁷³⁾에 따른 「尊孔崇儒」 및 新儒學, 즉 理學의 발전에 따른 유가 인물 전체에 대한 존승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⁷⁴⁾ 이러한 경향은 유목왕조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거란, 여진, 몽고, 만주족의 내침은 전통 중국 문화발전에 많은 타격을 입혔지만, 孔子를 비롯한 유가 인물에 대한 존승 관념은 전통 왕조에 비해 강도를 더해갔다.

元 武宗은 至大 元年(1308) 「大成」을 첨가하여 「大成至聖文宣王」으로 尊封했다. ⁷⁵⁾ 「大成」은 일찍이 孟子가 孔子를 예찬한 「集大成」에 보인다.

明 世宗은 嘉靖 9年(1530) 孔廟祀典을 개혁하면서 “尊孔子者，尊其道也。道之所在，師之所在也”⁷⁶⁾라는 이유로 이전 孔子에 대한 각종 諡號 및 封號를 모두 취소하고 「至聖先師」로 改尊했다.⁷⁷⁾

清代 世祖는 順治 2年(1645) 「大成至聖文宣先師」로 加尊하였으나, 14年(1657)에 가서는 「至聖先師」로 改尊했다.⁷⁸⁾ 한편, 康熙帝는 孔廟 大成殿 편액을 쓰면서 孔子를 「萬世師表」라 칭송했다. 그의 도덕과 학문은 영원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귀범이된다는 의미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孔子를 지칭할 때 이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 후 청말에 이르기까지 孔子에 대한 追封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孔子에 대한 역대 제왕들의 존승 태도는 전통 왕조보다는 유목 왕조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孔子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가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전통 왕조의 통치자들은 주로 孔子를 治國經略의 방법을 제시해 준 성인으로만 존승하여 숭배의 대상과 범위를 학교 교육생 및 학교 공간으로 제한했었다. 한마디로 역대 전통 왕조의 제왕들은 孔子를 중국의 교육자로만 인정하였을 뿐, 통치자들에 대해 통치 방략을 개도한 聖인으로 우상화하는데에는 인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周公이 절대 우위를 차지했다. 唐代에는 그 경계가 더욱 분명하여 孔子는 道統, 周公은 治統을 대표하는

70) 《宋書》卷7 眞宗本紀. “玄聖”에 대한 해석은 구구하다. 春秋緯 《演孔圖》에서는 “孔子母夢感黑帝而生，故曰玄聖”이라 했다.

71) 《後漢書》班固 〈典引〉 및 〈仲長統傳〉의 李賢注에 보인다.

72) 《宋書》卷8 眞宗本紀.

73) 《續資治通鑑長篇》卷23.

74) 苗春德, 《宋代教育》(河南大學出版社, 1992年 7月), PP. 11~16.

75) 《元史》卷22 本紀.

76) 《關里文獻考·卷14》.

77) 《明史》卷17 世宗本紀. 당시 개존 배경에 대해서는 《國朝祀典說》에 상세하다.

78) 《清史稿·世祖紀》.

인물로 각각 고정되었다.

한편, 宋 이후 유목 왕조의 통치자들은 孔子를 증원 문화의 개창자이며, 그 발전의 일등 공신으로 보았다. 즉, 孔子를 전통 漢 왕조의 평가와는 달리 증원 문화의 대표자라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유목 왕조들은 처음 이중적 지배체제를 강화할 때에는 증원 문화에 대한 경계 및 상대적 열세감 속에서 孔子廟를 훼멸하는 등 그에 대한 반감이 심하였지만, 통치 안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孔子에 대한 존숭이 곧 한족 통치에 대한 자신감 및 漢化의 열의 정도를 가늠할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V. 結 言

모든 사상의 출현이 그렇듯 孔子 교학 사상의 출현도 시대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孔子 교학 사상의 寶庫라 할 수 있는 《論語》를 보면 여기에 출현하는 각종 단어나 관념은 그의 일생 경험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고민, 개혁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자세한 시대적 상황을 모르거는 이해하기 힘들다.

孔子가 살았던 춘추 시대 후기는 정치, 경제, 사회의 대 변혁기였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주도했던 주인(主因)은 봉건제도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周代 봉건제도는 宗法과 禮法에 의해 유지되었고, 양자는 질서 관념을 대단히 증시하였다. 그리고 당시 질서 관념의 유형적 표현은 곧 '禮'였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은 결국 이러한 禮에 입각한 질서 관념의 해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춘추 전국 시대 경·대부 등 신흥 계층들의 성장과 함께 토지를 매개로 한 생산 관계의 변화, 독립 상공인의 출현, 철기와 牛耕의 확산에 따른 생산력 증가, 國人의 분화와 平民權의 신장 등은 구질서의 타파와 함께 새로운 사회질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孔子는 이러한 당시의 사회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의 생애로 볼 때 그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는 周代 禮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스스로의 각성과 현실적 체험을 통해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자신이 수립한 이론을 보편화하는데 노력했다. 때문에 孔子의 사상은 다른 諸子들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사회 문제에 대한 「自覺」을 표면화시켰고, 이를 학문적으로 승화시켰다.

孔子 교학 사상의 출현 배경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 교육과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상호 결합시키려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사회 개혁 및 새로운 질서 수립의 출발선을 교육에 둔 점, 교육의 출발을 人性 순화에 둔 점, 그리고 교육의 대상을 「有教無類」, 즉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은 당시의 변법가나 다른 사상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시대적 통찰력이었고 혜안이었다. 孔子를 중국 교육의 성인으로 보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漢武帝 元朔 5年(B.C 124) 「興太學」 이후 孔子가 주창한 유교주의 교육은 학교 교육의 주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孔子는 학교 교육의 우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그러나 공간은 교육 장소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유는 중국의 학교 교육이 정치에 강하게 예속되어 관리양성소의

역할만 담당해냈기 때문이다. 한족 왕조의 통치자들에게 孔子의 위치가 평가절하되었던 이유도 이러한 점에 있다.

전통 왕조와 송 이후의 정복 왕조를 놓고 孔子에 대한 존송 태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성인으로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는 후자의 경우가 진지했고, 적극적이었다. 거란, 여진, 몽고, 만주족의 중원 통치 시대 전통 한족의 교육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방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참 고 문 헌

1. 史部正史類

- 《史記》，新校本，北京，中華書局，1959年.
- 《漢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62年.
- 《後漢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65年.
- 《晉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4年.
- 《魏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4年.
- 《周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1年.
- 《舊唐書》，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5年.
- 《宋史》，新校本，北京，中華書局，1985年.
- 《元史》，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4年.
- 《明史》，新校本，北京，中華書局，1974年.
- 《清史稿》，新校本，北京，中華書局，1985年.

2. 史部編年、雜史類

- 《貞觀政要》，三民書局，臺北，1985年.
- 《續資治通鑒長篇》，世界書局，臺北，1884年.

3. 史部政書類

- 《唐會要》，上海古籍出版社，1991年.
- 《通典》，中華書局，1992年.
- 《五禮通考》，臺北，新興書局，民國59年.
- 《文廟祀典考》，臺北，中國禮樂學會，民國66年.

4. 子部、類書類

- 《論語今註今譯》，臺灣商務印書館，民國73年.
- 《孟子譯註》，中華書局，1960年.
- 《莊子今註今譯》，中華書局，1983年.
- 《左傳》，貴州人民出版社，1990年.
- 《禮記》，中華書局，1983年.
- 《冊府元龜》，臺北，大化書園，民國76年.